

도심의 봄...야외축제 활짝

파란 하늘,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나들이를 부추기는 시기다. 오는 26일부터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은 각각각색 즐길거리를 마련하며 봄나들이 손님을 맞는다.



'노브레인'

■ 문화전당 봄마당 축제 '봄, 봄, 봄'

'노브레인'·'데이브레이크' 등 록밴드 공연
벼룩시장·먹을거리 어우러진 6주간 축제

■ 예술의 거리 '나비아 공동가자'

공예·회화 배우고 짚풀공예·떡메치기 체험
26일부터 매주 토요일...공동유람·갤러리 산책

■ 대인예술아시장

매주 토요일 밤 셀러 150팀 공예품 판매·공연

26일 김미승 시인 '이 빛깔들은...' 주제 강연

◇ACC 봄마당 축제 '봄, 봄, 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4월 30일까지 6주간 대규모 야외 축제(오후 2시~밤 9시)를 시작한다. 공연과 베틀시장, 풍성한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유쾌한 행사다. 매주 공식 초청 아티스트 공연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한 시민과 예술단체의 무대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 공방 음악캠프'의 아외극과 '크누아 브라스 콰텟'의 연주로 26일 축제의 막을 연다. 메인 공연은 '노브레인'과 '데이브레이크'가 담당한다. 지난 2007년 데뷔한 4인조 그룹 데이브레이크는 '들었다 놔다'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펑크 록밴드 '노브레인'은 '넌 내게 반했어', '미친 듯이 놀자' 등 흥겨운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조선태기타 동아리 '하모닉스', 여성 싱어송 라이터 '어나', 조선태 악대 밴드 '오르페', 4인조 록그룹 '블랙아이스티', 4인조 인디밴드 '첸치한 버스'가 공연한다. 또 수공예, 예술상품, 체험행사 등 12명(팀)의 셀러가 참여하는 베틀시장도 열린다.

전당은 메인 공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라인업도 발표했다. 4월 2일에는 베틀리 음대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재즈그룹 '프렐류드'와 6인조 재즈 펑크 밴드 'JSFA'가 공연하며 가수 이한철과 5인조 밴드 '신나는 섬'(4월9일), 스카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와 '신델라의 With You 밴드'(16일), 라틴 재즈 밴드 '로스 아미고스'와 LDP 무용단(23일), 창작 타악그룹 '리듬플라주'와 '청배연희단'(30일) 등이 무대에 선다.

한편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도 눈길을 끈다. 오는 8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와글와글 이야기 나라'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서울상상나라, 한국만화박물관의 우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백남준과 여러 예술가의 새로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발한 예술가

들', '열 두상자와 떠나는 화페여행', '만화의 울림-전쟁과 가족', '한국-이탈리아 그림책 작가전' 등이 기다리고 있다. 무료 관람.

◇ 예술의 거리-나비아 공동가자

긴 겨울잠 끝에 나비가 깨어났다. '나비아 공동가자'가 26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이 지난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했던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토요일로 시간을 옮겼다.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술의 거리에서 예술가처럼 노는 법'은 공예, 회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예술의거리 구성원 34팀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철사와 테이프로 인간의 다양한 표정, 몸짓을 만들어 보는 '인간군상만들기', '전각도장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또 '짚풀공예', '떡메치기' 등 체험도 마련했다.

'새공동유람', '갤러리산책' 프로그램 일환인 스탬프 투어는 숨겨진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리플렛에 그려진 투어도도를 들고 갤러리 등을 찾아다니며 작품사진찍기, 전시회 제목쓰기 등 미션을 완수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총 15곳 미션 완수자들에게는 '예술가처럼 노는 법' 유료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한켠에서는 셀러 12팀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이 열린다. 셀러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예코가방, 수세미, 향초 등을 판매한다. 20개 상품들이 상품을 10~20% 할인 판매하는 '블랙레터 데이'도 진행한다. 각종 수공예품 뿐 아니라 커피, 분식, 도넛, 순대국밥, 고등어조림 등도 대성이다. 중앙무대에서는 광주 오키나와 앙상블 100인 합주, 파랑색 극단 인형극, 매직아트-변검소·마술쇼 등 공연이 열린다.

이 기간 3개 음식점은 예술웃으로 갑아입니다. 무등반점, 강향국밥, 신선분식 벽에 최재영, 곽수봉 등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밖에 5·18 민주화기록관 1층에서는 퀴즈풀기가 진행된다. 퀴즈를 맞춘 관람객들은 예술체험 쿠폰을 받는다. 문의 062-223-0137.

◇ 대인예술아시장

지난해 매달 두차례 이틀간(금·토요일) 열렸던 대인예술아시장이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오후 7시~새벽 12시)마다 열리고 있다. 아시장은 셀러 약 150개팀이 판매하는 다양한 수제 공예품과 공연이 볼거리다. 국수, 파전, 순대, 오뎅 등 각종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다.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은 '봄의 문장 별장'으로 문화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26일에는 김미승 시인의 '이 빛깔들은 어디에서 왔나' 주제 강연에 이어 박석준·조혁준 시인의 낭송이 진행된다. 또 오후 8~9, 밤 10~12시 DJ 문형식이 참여하는 '별이 빛나는 별장'이 열린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블로그 (blog.naver.com/byeoljang), 이메일(bluman337@hanmail.net), 손 편지 등으로 사연을 보내면 DJ가 소개해준다. 문의 062-233-1420.

/김미승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화우회 한·일 교류전

24일~31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하인택 작 '포구'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광주와 일본 미술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 화우회(회장 하인택)가 주관한 제4회 한·일 교류전이 24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일본 조지현과 광주시 미술작가 교류전이다. 광주를 비롯한 한국 작가 20명, 일본 6명 등 총 26명이 참여해 작품 36점을 선보인다.

광주 화우회는 원래 광주와 자매도시인 샌디에간 미술교류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지난 2010년까지는 광주-샌디에간 회화교류전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일본 지진으로 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3년부터는 오키나와 지역 고도도리화우회와 교류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작가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풍경을 작품에 담았다. 다른 듯 비슷한 광주와 일본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또 같은 풍경화이지만 색채나 구도 등 나라별 특징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28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윤정 피아노 독주회

2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정윤정 독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 작곡가의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흐의 '토카타 작품번호 914', 베토벤의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슈만의 '카니발'이 연주된다. 특별히 21개의 곡으로 구성된 슈만의 '카니발'은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정씨는 광주예고를 수석 졸업하고 경희대, 뉴욕 맨해튼 음대를 거쳐, 미시간 주립대에서 논문 '차이코프스키 러시아 피아노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서울과 광주에서 활발히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강릉원주대학교, 남부대학교, 광주에고에 출강하고 있다. 티켓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공연문의 010-6331-6834.

/김미승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의 거리 '나비아 공동가자' 지난해 행사 모습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단 제공>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